



미디어 속의 이주민 재현

정혜실 (단원FM공동체라디오 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KBS에서 방영하고 있던 <러브인 아시아>(2005-2015)라는 프로그램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현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미디어 평가를 맡은 적이 있다. 이주민이 등장하는 KBS의 <미녀들의 수다>(2006-2010)와 JTBC의 <비정상회담>(2014-2017)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제는 특정 프로그램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영화에서도 이주민 캐릭터가 다수 등장하고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소재로 하는 유튜브(YouTube) 채널도 많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과 결혼 후 베트남 현지에서 살면서 부동산을 소개하는 남성, 필리핀 여성과 결혼 후 자녀들을 콘텐츠로 높은 조회 수를 올리기도 한다. 이주민 관련 콘텐츠와 플랫폼 모두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이주민 이미지에 섬세한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결혼과 여성에 대한 시선 1994년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인데 그때만 해도 백인 특히 미군 출신 백인과 한국여성의 결혼처럼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 사례가 많았다. 이후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가 흡사 국가 프로젝트가 되면서 그 수가 급증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관점도 변화한다.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을 한국 여성의 성적·도덕적 타락으로 간주했다면 이제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의 주체가 되자 국제결혼 자체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환영받는다. ‘장가가지 못한’ 나이든 남성의 결혼을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주려 한다.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에 대해 결혼 자금 지원, 거주시설 지원 등 국가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주여성이든 한국여성이든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한 건 비슷하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은 그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의 대상이 된다. 교육계의 많은 논문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이주 여성의 ‘불완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육아로부터 올바르게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개별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레임은 단일하게 정해져 있다. 아이들은 학습 부진과 따돌림의 대상이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 여성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서만 그려진다. 폭력 피해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찾는 이들에 대한 통계가 다문화 가정의 문제로 자주 노출되다 보니 폭력 피해자로서의 이주여성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선도적 시각이 중요해진다.

동정적 대상이 되는 이주여성 이러한 시각은 방송 내용에도 반영되고 혹은 방송에 의해 증폭된다. EBS에서 방영됐던 <다문화 고부열전>(2013-2021)은 종영 이후에도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에서 재방송을 거듭하며 방영되고 있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계속 퍼돌고 있다. 한국의 50-60대 여성들이 매우 즐겨 보았으며 시청률도 높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정작 이주여성들은 매우 싫어하는 방송으로 꼽힌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여성에 대해 매우 동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시청자들은 방송 내용에 가슴 아파하

고 울기도 한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이주여성에 대해 물어보면 “불쌍해요. 도와줘야 돼요”라고 말한다. 직접 이주여성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런 생각이 불쑥 나오는 건 이런 방송을 본 후 형성된 인식 때문이다. <다문화 고부열전>은 시어머니와 이주여성인 며느리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결혼의 중심은 부부인데 남편은 쏙 빠진 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중심에 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가족이 살고 있는 본국을 방문하는데 며느리 가족의 어려운 환경을 보고 갑자기 갈등이 해결되는 구조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야 한다면서 시댁에 선물을 하고 심지어 집도 사준다. 며칠 간의 짧은 방문을 통해 며느리를 이해하게 됐다면서 갑작스러운 화해 모드가 펼쳐지고 갈등은 봉합된다. 결혼이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신적 독립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부부의 주체성은 간과되고 표피적으로 드러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해결로 마무리 된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국제결혼 TV조선에서 방영했던 <사랑은 아무나 하나>(2017-2018, 2023)는 조금 다른 구성이다.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한 국제결혼을 주로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대체로 높다. 태국 재벌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나오는데 아마 이 여성이 프로그램 제작의 계기가 된 것 같다. 태국 재벌과 결혼한 여성의 삶, 마치 연예인의 삶에 대해 엿보는 자극적 요소가 있었던 것 같다. 궁궐 같은 집에 잘 생긴 재벌 남편까지 등장한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남편들은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 인도네시아 선박 회사의 아들, 호텔 지배인 등 높은 경제력을 수반한다. 국제결혼 이후 해외에 거주하는 중상류층에 속하는 한국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 과거에 국제결혼했던 한국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엘리트 여성들을 보여준다. 뭔가 ‘제대로 된 국제결혼이라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한국 내의 결혼 이주여성의 이미지와도 비교된다. 시청자는 별생각 없이 시청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되며 비교되는 이미지가 이주 여성에 대한 특정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서로 다른 외국인의 여행 MBC every1에서 방영하고 있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예찬을 열심히 보여준다. 시청자들이 보는 내내 ‘국뽕’을 느끼게 해준다. “와! 성수동이 너무 대단해. 서울 너무 멋있어” 이런 얘기와 한국 문화, 한글에 대한 예찬, 좋은 호텔과 유명 관광지를 가는 외국인들은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이들의 지인들인데 주로 서구권에서 오거나 아시아에서 오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 위주로 출연한다. 이런 외국인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듬뿍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인기를 누린다.

EBS에서 방영했던 〈글로벌아빠 찾아 삼만리〉(2015-2019)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이주노동자인 아버지를 방문하는 가족의 빈곤함과 어려움이 부각된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가족 방문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조우는 제도적으로 사실 어렵다. 오로지 방송을 위해 선택된 가족은 한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이들이 향하는 곳은 아버지의 노동 현장이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의 기숙사에 함께 머물고 고생하는 아버지를 지켜본다. 공장과 숙소가 주로 지방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화려한’ 서울이 아닌 지방의 작은 놀이공원에서

잠깐의 놀이를 즐긴다. 짧은 몇 일간의 만남 이후 가족들은 공항에서 울며 헤어진다.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네팔에서 온 아이들이 한 겨울에 공항에서 샌들을 신고 있던 장면이 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현금 만원을 어머니에게 주며 아이들 양말을 사주라고 한다. 제작진은 네팔 가족에게 미리 날씨 정보를 줄 수도 있었고 이런 장면을 편집할 수도 있었을 텐데 현금을 손에 쥐어주는 한국인 할머니와 추위에 샌들을 신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방송했다. 시청자들의 동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통역으로 투입되었던 방글라데시인 지인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제작진들이 출연 가족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허름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두 방송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방송국이 다르긴 하지만 이들이 외주 업체에게 방송 외주를 맡겼을 때 처음부터 투여되는 제작비의 규모가 너무 다르다. 제작비 규모에 이미 제작진들이 서로 다른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전자의 경우 외국인의 시선을 빌려서 결국은 한국 사회를 선망의 대상으로 그리기를 원하고 있고 초대되는 이들은 한국인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효율적으로 시청자들이 눈물 흘리고 동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뽑아내려면 저렴한 제작비로도 충분하다.

인종차별에 대해 한국 사회가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상대적이다.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할 때는 주로 북한과 대적하는 영화들이 등장하다가 북한과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던 시기에는 영화적 소재로서 ‘조선족’이 등장한다. 영화 〈차이나타운〉, 〈범죄도시〉, 〈청년경찰〉 등 장르 영화들에서 ‘조선족’을

범죄자로 그리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미지화하기 시작한다. 영화를 만드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나 혐오가 아니라고 했지만 중국 동포 당사자들은 매우 힘들어했다. 당시에 ‘오원춘’ 사건이 있었고 그가 중국 동포라는 점이 크게 강조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림동에서 이주민의 법률 지원을 하는 변호사 단체 <친구>가 중국동포사회와 함께 이 영화에 대해 소송을 한 적이 있다. 영화 상영 당시에는 판사가 영화적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상영 금지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 판사가 그래도 이로 인해 상처 입은 중국 동포들에게 감독이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어떤 영화감독은 이런 논란 자체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여기고 좋아하기도 한다. 게다가 중국 동포 역을 맡았던 배우가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으로 “저는 조선족이 아닙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말의 차별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본인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조선족’처럼 오해한다는 의미였겠지만 자신이 연기한 조선족의 이미지가 실은 한국 사회가 가진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 진정한 ‘조선족’의 대표성은 없다는 점은 간과되었다.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패널들에 대한 분석도 인종에 따라 다른 이미지가 부여된다. <비정상회담> 출연했던 이들이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전문가처럼 등장한다. 한국에 이주한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모국의 전문가 행세를 한다. 출연자들끼리 일종의 세력이 형성된 것인지 에이전시의 능력인지 다수의 프로그램에 전문가로 등장하는데 유럽국가 출신 패널들은 학력이나 전문성에 비해 백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전문가로 인정되는 분위기다. 오히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출신 패널들은 한국에서 박사학

위를 마치는 등 높은 학력임에도 전문가 이미지가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전문가의 기준이 단지 피부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이상과 같이 주류 미디어에서 반복되는 인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혐오, 비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젠더화된 인종 혹은 인종화된 젠더 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 상당수가 브로커에 의해 성사될 때 “착한 베트남 며느리 데려가세요” 이런 현수막이 걸리고 브로커들이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여성들의 사진을 올려 관리하곤 했다. 여성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여성가족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업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여성들의 사진을 임의로 올리고는 상품처럼 한국 남성들의 선망을 자극하고 있었다. 최근에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하면서 유튜브에 직접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젊은 층도 많은데 그 중에는 선정적인 소재로 조회 수를 올리려는 이들이 많다. 주로 남성 유튜브인 이들은 자신이 베트남 여성, 아랍 여성을 실제 만나본 경험담이라면서 여러 국적의 여성들의 몸을 평가하고 성적 태도를 순위 매긴다.

한국에서의 인종차별 한국에 무슨 인종차별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용어들부터 정부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인종차별은 매우 다양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UN에서 계속 이런 점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가령,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보다 “미등록체류자”라는 용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전자는 그 대상을 범죄자로 쉽게 단정 짓기 때문에 폭력을 수반한 단속과 추방을 정당화한다. 이 권고 이후 법무부는 홈페이지에서 영어로는 미등록체류자(undocumented)라는 표현

을 쓰고 있지만 한국어로는 여전히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편견이 강화될수록 학살과 같은 폭력적인 방식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에서 설마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개인 유튜버가 스스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실제 단속에 나가는 장면을 올리기도 했다. 아직은 소수지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혐오 범죄가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미디어 모니터링 이주민방송에서 일할 때 10명의 선주민과 10명의 이주민이 함께 텔레비전 방송의 모니터링을 했다. 각자가 문제로 지적하는 지점들이 달랐다. 그러나 모니터링의 내용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다. 2018년 UN에 다녀왔는데 UN의 인종 차별철폐위원회 권고를 받은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인종 혐오 발언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주시하라고 했지만 권고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서울시의 130개에 이르는 마을미디어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이 권고를 반영하여 공유하기도 했지만 영향력이 큰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들에 대한 권고의 영향은 여전히 크지 않다.

이주민의 재현 영화 비평가인 수잔 헤이워드가 이미 영화의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지적했는데 이게 나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예능 방송, 드라마 등 대부분의 방송에서 특정 역할의 인물이 등장할 때는 이 모든 것에 특정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조선족’ 여성을 보며 웃지만 여기에 편견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혹은 <소년은 자란다>라는 영화에서처럼 주인공 한국 소녀의 성장을 위해 이주민인 소녀

와 소녀의 아버지는 주변 인물로 등장한다. 난민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난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와 매우 다른 시선을 보여준다. 미디어 콘텐츠는 이렇게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이주민영화제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는데 사전제작 지원을 통해 이주민들이 짧더라도 직접 영화를 만들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주민 당사자의 시선은 이주민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가령 한국의 많은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있는데 주로 남성 이주노동자를 많이 생각한다. 그런데 한 작품이 남성 네팔인이 촬영하기는 했지만 주인공 여성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구성되었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본국에 돌아갔더니 남편은 아내가 벌어들인 돈을 갈취하고 집 명의를 자신이 갖기 위해 여성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여성의 복잡한 심리적 변화와 함께 마지막에는 여성주의적 자각과 함께 페미니스트 변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난다.

또 다른 사례로 몽골 이주민이자 가수인 가나(S. Gantogoo)와 인디음악을 하는 한국의 정재영 두 뮤지션의 몽골 여행 대한 다큐멘터리 <옐로우 버스>다. 가나는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왔다가 몽땅이라는 극단에서 활동하던 차에 몽골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2등까지 하면서 몽골의 아이돌처럼 인기 가수가 된다. 이후 한국 기업들이 그를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몽골 명예대사로 임명을 하면서 가나에게 7년짜리 비자를 준다. 이주노동자로 왔을 때는 본국으로 빨리 돌아가라던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이런 영화에서는 감독은 한국인이긴 했지만 뮤지션으로서의 몽골인 가나의 시선이 잘 드러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원FM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이다. 이주

와 관련된 콘텐츠나 행사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개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기후에 관련된 주제를 다뤘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우리가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서의 생활 중심이 아닌 각자의 본국에서의 기후 얘기를 하게 되었다. 직접적인 기후위기는 아니었지만 각 나라의 기후 관련 생각과 관련 노래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개방송 행사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콩고,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분들의 본국에서 불리는 기후 관련 노래들을 같이 부르기도 하고 퀴즈를 맞추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후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이러한 주제를 이주여성들과 나누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을 분절적이고 단절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본국에서의 삶과 연관성을 가진 존재,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두 겪고 있는 기후와 환경 문제를 한국과 연계시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의 언어로 나의 이야기를 담은 라디오 방송 방송에서 현재 다국어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은데 <너머스떼 코리아>는 네팔어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안산 원곡동에 있는 네팔도서관에서 활동하던 네팔 노동자들을 알게 되었고 이들에게 단원FM이 개국하면서 네팔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해보라고 제안했다. 이들에게 라디오 제작 교육을 했고 이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다. <한국거주 캄보디아 노동자 이야기>는 캄보디아어로 진행되는 캄보디아 청년들의 이야기다. 단원FM의 대표가 이전부터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단체를 운영해왔다. 2012년부터 원곡동에서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 문제를 돕고 있어서 이 캄보디아분들에게도 방송 제안을 했고 현재 같이 하고 있다. <歌之声중국음악사랑방>은 세 여성이 함께 진행하는 중국어 방송이다. 한국인과 중국 출신 결혼이주 여성이 함께 중국어

와 한국어를 오가며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도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한국의 이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언어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송을 늘려갈 계획이다. 다국어 방송의 주체를 찾는 게 쉽지 않다. 노동자들은 야근을 많이 하고 비자 기한이 되면 본국으로 대부분 돌아가기 때문에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제결혼 이주민들과 상대적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다.

원곡동에는 약 100개국 이상의 출신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모든 외국어로 된 방송을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좀 더 다양한 언어의 방송을 지원해서 늘려가려고 한다. 단원FM의 설립 목적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성소수자, 세월호 가족들, 노동자, 이주민 등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가 방송으로 나갔으면 한다. 호주의 다문화 공영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다문화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상당히 많은 다국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안산 원곡동 지역도 다문화 특수성을 반영한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의 특수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88.7MHz의 주파수를 받았다. 문재인 정권 때 마지막 공약사업으로 전국에서 공동체 라디오 공모를 받았는데 정치인이나 종교인은 공동체 라디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안산에서 정치인이 우회적으로 라디오 공동체를 하려는 걸 알고 지역사회의 여러 시민단체가 시민이 만드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모에 지원했다. 안산은 이미 이주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국어 방송을 공모의 주요 특성으로 다루었다.

이주노동자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느라 스튜디오에 와서 녹음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기가 어렵다. 방송국 입장에서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일정에 맞추기 보다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하고 비는 시간에는 재방송을 편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건 한국인들이 진행하는 공동체 라디오가 이주민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 릴스나 쇼츠가 유행하는 ‘3분 컷’의 시대에 1시간짜리 라디오 방송을 차분히 앉아 듣는 사람도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디오는 어떤 면에서는 기능적인 거고, 90퍼센트는 공동체의 연결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안산이 “상호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3퍼센트의 원주민, 국내 이주민인 선주민, 그리고 이주민이 각자 따로 구분되어 있다. 소수의 원주민을 제외하고는 국내와 국제 이주민이라면 대부분이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동료 시민으로 바라보게 할 것인가가 단원FM이 지향하는 지점이다.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이주민라디오방송을 할 때 평균 청취횟수가 400-500회 정도였는데 단원FM의 방송 청취회수는 30-50회로 매우 낮은 편이다. “아 정말 사람들이 안 듣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조회 수가 높아질 때가 있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분이 출연할 때 확실히 조회 수가 증가한다. 청취자수가 적고 인기 있는 매체는 아니지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기획하고 엔지니어가 돼서 송출하는 열린 매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동체라디오의 재정적 어려움 처음 공동체라디오를 안산에서 제안했던 활동가들은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지원금이 초기에 2억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아예 사라졌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재정적 지원이 전무하다. 현재 27개의 공동체라디오가 그래서 지역과 유기적 연계를 해야 하는데 기존 단체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반면 우리 같은 신규 방송국은 매우 어렵고 안산이 더군다나 마을미디어와 같은 미디어 활동 기반이 없던 상황이다. 그래서 재정 마련도 시급하지만 지역 공동체들의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더 필요했다. 지금까지 지역 사회 단체들을 3년 동안 열심히 만났고 그 결과로 약 200명의 지역 회원들이 생겼다. 물론 운영비로 한 달에 약 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회비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3명의 상근 근무자가 있는데 상근비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후에 스튜디오와 방송국을 정식으로 만들고 송신소를 구축했다. 일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모금과 후원으로 마련했다. 내 일생의 시민운동 중에 이렇게 큰 금액을 모은 적이 없는데 스스로 보기에 대단한 일이었다.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시작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몰랐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시민운동 기반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같은 지역에 살지만 서로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걸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된다. 지역의 공동체라디오가 지역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내고 한편에서는 시의회와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특히 선거철이 되면 선거운동 차원에서 출연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방송을 통해 지역 의제들을 발굴해서 다시 듣기를 가능하게 하면 그 자체로 아카이브 기능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처음부터 재정적 기반 없이 오로지 시민들의 지지로 유지되다 보니 많은 외부 지원이 중단돼도 뭘 뻗긴다는 두려움은 없다.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현재 앱과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단원FM 청취가 가능하다. 지역 공동체 라디오지만 온라인 플랫폼도 같이 운영하는 건 이주민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주민의 미디어 참여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고 서로 스튜디오 예약하려 하고 초대 손님을 어디서 발굴했는지 우리도 모르는 분들도 모셔온다. 심지어 자기 시간 내고 후원금까지 낸다.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적어도 안산 지역사회에서 매체의 파급력이 생길 바란다. 전에 활동했던 이주민 방송은 지역기반이 없다보니 의제가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이걸 듣는 선주민은 확실히 이주민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다. 이주민이 만드는 방송의 콘텐츠는 스스로 기획한다. 단원FM에서는 엔지니어 기술 교육만 제공한다. 본인들의 기획에 따라 초대 손님도 부른다. 개인 이주노동자가 매주 방송을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조를 짜서 로테이션제로 운영하기도 한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방송을 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으로 다른 지역에 배치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이주노동자의 활동 한계는 결국 고용된 위치에 다른 변동이다. 반면 결혼이주 여성들은 안산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경우 방송의 지속 가능성도 높다.

*이 글은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의 콜로키움 시리즈 20차에 초대된 정혜실님의 발표를 녹취 정리한 후 발표자의 검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